



## Grey & 12: 박미나 개인전

By ccca

2013-12-20

---

국제갤러리는 올해의 마지막 전시로 박미나의 개인전 를 개최한다. 이번 개인전은 2010 년 이후 국제갤러리에서 갖는 두 번째 개인전으로서 작가가 주력해온 색칠 공부 드로잉의 새로운 연작과 이번 전시를 위해 첫 선을 보이는 일련의 추상회화들을 선보인다.

이번 박미나의 개인전은 시중에 유통되는 다양한 기성 물감과 색연필 및 흑연을 수집하고 이를 종류별로 분류 및 조합하여 작가의 고유한 회화적인 어법을 통해 탐구한다. 일종의 사회적인 관념을 상징하는 레디메이드로 차용된 정형화된 색상 곤, '회색' 및 '12 색'은 어린아이들의 교육용 목적으로 제작된 색칠공부의 밑그림에 따라 작가의 개념적인 드로잉으로 선보이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작가는 인물 및 풍경의 회화작업을 위해 국내에서 '호수'로 규격화된 캔버스들의 다양한 크기 변화에 따른 표현주의적인 추상 회화를 제작했다.



*12 Colors Drawings II, 2013, Colored pencil on coloring page, [Jikuguahak Colored Pencil], 34.5 x 26.5 cm each (framed), Image provided by Kukje Gallery,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전시장 1 층 입구에는 1998 년부터 진행된 색칠 공부 드로잉 연작 중 신작을 볼 수 있다. 이 작품은 도형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해, 달, 별의 이미지로 분류되어 수집된 학습용 색칠공부 낱장으로 제작되었다. 그리고 가장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문구회사의 상표인 '모나미'와 '지구 슈퍼 색연필'에서 나온 12 색연필들로 12 색의 드로잉 연작 을 그렸으며, 달이 밑그림 된 색칠공부 낱장에는 미국 Blick 사의 12 종류의 회색 색연필세트를 사용한 연작을, 마지막으로 해가 밑그림 된 배경으로는 다양한 미술 재료 브랜드들에서 제조된 연필들로 제작된 연작을 그렸다. 이 각각의 흑연들의 상표와 흑심의 명도들은 곧 독립적인 작품의 제목으로 표기되어 관람자로 하여금 이를 비교 및 구분해볼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더불어 이는 회색이 지닌 다채로운 색의 층위를 보여준다.

1 층의 주요 전시공간에는 박미나가 새롭게 시도하는 유화로 제작된 추상회화 'Figure'를 선보인다. 사실 작가는 이전부터 한국에서 통용되는 다양한 제조회사의 아크릴 물감을 수집 후

종류별로 분류하여 정사각형 혹은 기존의 캔버스 크기에 작업을 지속해왔는데, 그 실례로는 1995-96 년부터 시작되었던 '하늘 Sky' 회화연작이 있다. 이는 작가가 하늘색과 관련된 모든 종류의 물감을 구매하여 거리에 나가 특정한 지점의 하늘의 색을 물감으로 재현했던 작업이다.



*Figure 20, 2013, oil on linen, 72.7 x 60.6 cm, Image provided by Kukje Gallery,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이번에 첫 선을 보이는 작품 'Figure' 또한 국내의 화방에서 수집된 흑·회·백색의 다양한 유화 물감들을 사용해서 0 호부터 200 호까지 초상화(Figure) 용도로 규격화된 총 22 개의 캔버스에 작품을 제작했다. 이는 단순히 색상을 채집 및 활용하는 것이 아닌 일련의 작품제작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계층의 흥미로운 지점을 동반하고, 동시에 오랜 시간에 걸친 작가의 노고에 따른 결과를 모색함으로써 우리가 의심 없이 받아들였던 사회의 관습적인 규정과 함의를 반추하게 한다.

이 작품은 기본색이라 규정된 안료들이 기계적으로 배합되고 양산된 색상의 산업화와 더불어 17세기 초 앤트워프 길드로부터 시작된 패널 사이즈와 19세기 프랑스의 캔버스 사이즈의 규격화에서 기인한 기성화된 두 범주에 대해 다루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추상표현주의 회화들은 정해진 인물화의 규격에 따라 추상적 기법의 초상화들로 제작되었는데 이는 작가와 관련된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에 대한 일종의 사적인 서사로서 각 관계에 따른 작가의 심상적인 표현을 나타내고 있다.



*Figure 30, 2013, oil on linen, 90.9 x 72.7 cm, Image provided by Kukje Gallery,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박미나는 기본색이 지니는 다양한 계열에 대한 연구를 2 층에 전시된 '12 Colors' 연작을 통해 정형화된 유화물감의 색면 추상의 영역으로 확장한다. 이는 12 색 색연필과 마찬가지로 상업화목적으로 유통되는 12 색 세트의 유화 물감에 대해 각 물감회사에서 임의적으로 지정한 '기본색'에 대한 기준이 이루어지는 사실에 착안했다. 작가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총 7 개의 주요물감회사에서 생산된 11 개의 12 색 유화 물감을 수집하여 정방형의 캔버스에 회사별 고유의 색채 명칭과 배열된 순서에 따라 색 면을 나열하였다. 이 작업은 색의 혼합이라는 예술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미적 재현을 이루던 기존의 순수 회화 관념에서 벗어나 상업적으로 생산된 원상태의 물감을 그대로 캔버스표면에 입힘으로써 동시대의 사회구조에 따른 보편성을 반영하는 색의 레이메이드식 물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Artist: MeeNa Park, Image provided by Kukje Gallery*

박미나(b.1973)는 미국 로드 아일랜드 미술대학교와 헌터 대학교 대학원에서 회화를 전공하였다. 현재 서울을 기반으로 활발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작가는 그녀의 고유한 작품세계 중 하나인 '딩벳회화'를 통해 이미 잘 알려진바 있는데 '딩벳 폰트'라 불리는 도식화된 기호 혹은 구성된 이미지들은 때때로 암묵적인 소통으로 때로는 유머러스하기도하며, 동시대적인 사회상을 반추하는 접근으로 나아가 대중적으로는 문화적 맥락을 독해하는 디지털환경에 익숙한 동시대의 팝아트로서 자리매김해왔다. 주요 전시 경력으로는 뉴욕 두산갤러리(2012), 갤러리 엠(2011), 국제갤러리(2010) 등에서 개인전이 있고, 경기도미술관(2013, 2010), 문화역서울 284(2012, 2011) 광주 디자인비엔날레(2011), 삼성미술관 플라토(2011), 아틀리에 에르메스(2009)

등의 그룹전에 참여하였다. 현재 그의 작품은 대림미술관, 삼성미술관 리움, 일민미술관, 홍콩  
도이치뱅크 등에 소장되어 있다.

---

**URL:** <http://cakorea.com/archives/8790>

\